



사이니 태민, 엑소 백현·카이, NCT127 태용·마크, 중그룹 웨이비 루카스·텐 '슈퍼엠' 시작부터 빌보드 정상

첫 미니앨범 美 '빌보드 200' 1위...SM 기획, 퍼포먼스 강점 'K팝' 매력에 시스템 접목 기성팬 기여 결과...대중성 확보해야

SM엔터테인먼트가 아심 차게 내놓은 그룹 슈퍼엠(SuperM)이 미국 무대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정상에 등극했다. 빌보드는 13일(현지시간) 슈퍼엠의 첫 미니앨범 '슈퍼엠'이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예고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한국 가수가 빌보드 무대에서 정상을 휩쓸기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이후 처음이다. 닐슨뮤직에 따르면 지난 4일 발매된 이 앨범은 10일 까지 16만8000점을 획득했다. 이 가운데 전통적인 앨범 판매량이 16만4000장이었다. 나머지는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rack equivalent albums·TEA)와 스트리밍 횟수(Streaming equivalent albums·SEA)가 차지했다. 슈퍼엠은 사이니 태민, 엑소 백현과 카이, NCT127의 태용과 마크, 중국 그룹 웨이비의 루카스와 텐 등 퍼포먼스에 강점이 있는 7명이 모인 팀이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이번 기획을 이끌며, 유니버설뮤직그룹 산하 레이블 캐피털뮤직(CMG)이 함께한다. 슈퍼엠의 첫 앨범에는 타이틀곡 '자핑'(Jopping)을 비롯해 '아이 캔트 스탠드 더 레인'(I Can't Stand The Rain), '투 패스트'(2 Fast), '슈퍼 카'(Super Car), '노 매너스'(No Manners)까지 총 5곡이 담겼다. 음악 전문가들은 K팝 스타들 특유의 매력에 '시스템'이 접목되면서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미 얼굴이 알려진 멤버들의 기성 팬들이 상당수 기여한 결과라는 점에서 대중성 확보가 숙제로 남는다. ◇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강렬한 SMP, 통했나? 슈퍼엠의 타이틀곡 '자핑'(Jopping)은 SM만의 뮤직 퍼포먼스, 즉 SMP(SM Music Performanc)라는 종합예술 콘텐츠를 보여주는 강렬한 사운드 곡이다. 웅장한 호른 사운드로 도입부를 여는 일렉트릭 팝 장르로 미래적인 콘셉트, 파우퍼풀한 안무가 특징이다. 다인조 그룹이 맥을 못 추는 미국에선 볼 수 없던 스타일이다. 음악 전문가들은 사이니, 엑소, NCT, 웨이비 등의 최정예 멤버들을 모아놓은 슈퍼엠이 미국 사회 취향 '다양화'를 정확히 짚었다고 풀이했다. 아시아 출신과 히스패닉 인구가 늘면서 미국인들은 자신들을 대변해 줄 다양한 음악에 갈증을 느꼈고, 이들이 여기서 한몫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김현식 음악평론가는 "글로벌 음악 문화가 바뀌고 있다. 취향의 집합성이 이번에 적절하게 효과를 발휘했다"며 "슈퍼엠은 다양한 가수들이 집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취향이나 선호를 충족하면서 영미권 국가들이 하지 못한 음악적 성취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적인 미국 레이블과 협업이 신의 한 수 슈퍼엠의 성공적인 데뷔는 유니버설뮤직그룹 산하 캐피털 뮤직 그룹(CMG)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이기도 하다. 케이티 페리, 샘 스미스, 트로이 시반 등 세계

적인 팝스타가 소속된 이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슈퍼엠의 미국 활동을 뒷받침한다. 지난 5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할리우드 한 북판의 캐피톨 레코즈 타워에서 야외 쇼케이스를 열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9일에는 슈퍼엠을 미국 NBC 간판 토크쇼 '엘런 드제너러스 쇼'에 출연시키는 등 미디어 노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김윤하 음악평론가는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에 대해 'K팝 미국 진출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는데 슈퍼엠으로 가시화했다"고 말했다. ◇ 마케팅 효과는 오래 못가...대중성 확보해야 슈퍼엠이 미국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대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빌보드는 슈퍼엠의 성취를 축하하면서도 "슈퍼엠의 멋진 출발은 팬들이 앨범을 구입할 때 가능한 여러 가지 조합에 힘입어 이뤄진 것"이라면서 "K팝 팬들은 여기에 열정적으로 돈을 쓴다"고 평가했다. 북미투어 콘서트 티켓을 사면 앨범을 주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김현식 음악평론가는 "기획사 마케팅은 초반에는 시선을 끌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슈퍼엠이 데뷔와 동시에 1위를 차지한 건 다소 몰랐던 공세적 결과일 수 있다"면서 "핵심적인 마니아층을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짚었다. 20대 중후반 멤버들이 포진한 슈퍼엠이 입대 문제를 앞둔 만큼 지속적인 활동에도 물음표가 남는다. 웹진 '아이돌로지' 미모 편집장은 "선불리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슈퍼엠이 몇 년간 정규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하지만 이를 통해 세계가 SM 아티스트들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KBS '걸어보고서' ... 정해인 첫 단독 리얼리티



KBS 2TV는 다음 달 배우 정해인을 내세운 새 예능 '정해인의 걸어보고서'를 선보인다고 14일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대표 장수 교양 프로그램인 KBS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의 예능 버전으로, 단순한 여행 리얼리티를 넘어 걸어서 여행하고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콘셉트로 제작된다. 특히 '정해인의 걸어보고서'는 정해인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단독 리얼리티 예능이라 눈길을 끈다. '국민 여하람', '멜로 장인' 등 수식어를 지닌 정해인은 이번 예능을 통해 방송에서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순수함과 민낯을 보여줄 예정이다. 정해인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실제 자신의 친구들과 걸어서 뉴유을 여행한다. 제작진은 "정해인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욕이 엄청나다"며 "사건 미팅 당시 메모장에 뉴욕 버킷리스트를 빼곡히 적어와 제작진을 놀라게 하는가 하면, '걸어서 세계속으로'를 잊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을 정도"라고 밝혔다. 정해인과 친구들은 현지 촬영을 위해 15일 출국한다. /연합뉴스

아이유, 다음달 1일 미니 5집 '러브 포엠' 컴백



아이유(26·본명 이지은)가 배우 활동을 잠시 접고 본업인 가수로 돌아온다. 카카오엔은 아이유가 다섯 번째 미니앨범인 '러브 포엠'(Love poem)을 다음 달 1일 발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매한 디지털 싱글 '삐삐' 이후 약 1년 만의 복귀다. 오는 29일에는 정식 발매 전 앨범에 수록된 곡을 먼저 공개할 예정이다. 아이유는 다음 달 광주, 인천, 부산, 서울 등에서 투어 콘서트 '러브 포엠'을 열고 12월에는 타이베이, 싱가포르,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방콕, 자카르타 등에서 해외투어가 계획돼 있다. 아이유는 지난달 1일 종영한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 주연 '장만월' 역을 훌륭히 소화하며 배우로 입지를 굳혔다. 지난 4월에는 첫 영화 출연작인 '페르소나'에서 주연을 맡았다. 2008년 '로스트 앤드 파운드'(Lost And Found)로 데뷔한 아이유는 2010년 발표한 '좋은 날'을 히트시키며 대표적 여성 보컬로 떠올랐다. 특히 '팔레트', '마음' 등 수많은 곡을 직접 쓰며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매김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4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탈 샐러드	30 930 MBC 뉴스 55 중계방송 국정감사 법무부	10 좋은 아침
[10]	00 중계방송 법무부 국정감사	40 지구촌 뉴스		00 중계방송 국정감사-법무부
[11]		00 조선로코-녹두전(재)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다큐 나는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바кет스트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헬로킴지 동물교실 2 50 중계방송 국정감사 법무부	55 닥터 365
[2]	00 중계방송 법무부 국정감사	00 제보자들(재)		00 중계방송 국정감사-법무부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탈 샐러드(재)	00 뽀뽀보 모두가 놀자 스페셜 30 뽀뽀보 모두가 놀자	00 고향건강톡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강력추천 배틀 트립(재) 25 뺑뺑	00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한민국:북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영재발굴단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TV블로그 꿈지락 스페셜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거리의 만찬(재)	55 특별기획 농업이 미래다 <사라지는 농막들, 변화하는 식탁>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0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조선로코-녹두전	05 한국방송대상수상 핑크피쉬	00 불타는 청춘 1~3부
[11]	35 UHD 송덕 40 시사기획 창(재)	10 지식채널E 프로젝트 배짱이 스페셜	05 PD수첩	20 불타는 청춘 1~2부
[12]	35 KBS 뉴스 45 KBS 걸작 다큐멘터리(재)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KBS 드라마 스페셜 2019(재)	00 100분 토론	00 나이트 라인 30 전국 TOP 10 가요쇼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건축탐구 - 집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00 스파이더맨
07:45 페파 피그	14:45 몰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당동당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머털도사
08:30 띠띠뽀 띠띠뽀	15:10 로보카 폴리(재)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중국 도읍지 전(傳) -하늘이 내린 물길, 황하>
09:00 출동! 슈퍼왕스	15:55 출동! 슈퍼왕스(재)	21:30 한국기행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추중진마, 독배기 2부 사랑도, 멋있고 맛있다>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사와 곰(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0:30 한국기행	16:40 당동당 유치원(재)	22:45 건축탐구 - 집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35 미래교육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5일(음 9월 17일 乙酉)

<p>36년생 차우의 문제는 차차하고 당면 과제부터 해결하라. 48년생 동쪽으로 진행 했을 때 능력이 극대화 될 것이니라. 60년생 오늘 추진했을 때 효율성이 가장 크겠다. 72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 하였던 국세로 탈바꿈할 수도 있느니라. 84년생 흥정을 허거나 교섭을 벌이는 형국이다. 96년생 침착해야만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80, 02</p>	<p>30년생 성과 성을 다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42년생 추진보다는 안정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54년생 이동하면서 분주한 하루를 보낸다. 66년생 오늘 추진했을 때 효율성이 가장 크겠다. 78년생 듣기만 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90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벅찬 하루가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88, 96</p>
<p>37년생 짐을 진채 거친 숨을 쉬면서 오르막길을 오름에 비유할 만하다. 49년생 거울과 같아서 한 번 금이 가면 회복할 수 없다. 61년생 미세하였던 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 73년생 양상을 살펴본 후에 판단하자. 85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이니 빨리 청산 하자. 97년생 사소한 집착이 대국을 망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9, 10</p>	<p>31년생 감당하지 못 하겠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백 번 낫다. 43년생 한 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55년생 든든 바와 실제와는 상당히 다르리라. 67년생 바로 그것이다. 79년생 여기저기에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으니 잘 살펴보고 다니는 것이 무난하리라. 91년생 예상했던 바와 틀림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01, 45</p>
<p>38년생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자. 50년생 시간을 끄는 지혜보다 신속한 추진력이 필요한 때이다. 62년생 절제 했을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74년생 간접적인 기반 위에서만 융성하게 될 것이다. 86년생 간접적인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8년생 형식과 내용을 두루 살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0, 36</p>	<p>32년생 결정은 속히 하되 실행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44년생 가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멀다. 56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함이 옳다. 68년생 기쁨이 조성 되리라. 80년생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92년생 생산성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49, 65</p>
<p>39년생 책임의 한계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맞다. 51년생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발언해도 된다. 63년생 입장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다. 75년생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 87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뒤따라 생가지 않을 것이다. 99년생 전혀 실속이 없으니 빨리 청산할수록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10, 24</p>	<p>33년생 눈에 피지 않게 조금씩 호전 되어가고 있다. 45년생 부드롭음이 강함을 이기는 바이다. 57년생 인위적이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공간이 크다. 69년생 치밀해야 성공을 높일 수 있다. 81년생 부분으로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93년생 뜻이 확실하다면 기탄없이 추진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03, 62</p>
<p>40년생 소탐대실할 수도 있으니 판단을 잘 하자. 52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길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64년생 적폐를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하다. 76년생 세부적으로 재검토 해야만 할 것이다. 88년생 잘 살펴보아야 하는 국면이다. 00년생 다 되어 가던 일이 반복해서 지연되는 일지이다. 행운의 숫자 : 36, 27</p>	<p>34년생 길조가 깃드는 판세이니라. 46년생 기적처럼 일어 나리라. 58년생 편의만을 추구한다면 자기 틀에 갇히리라. 70년생 상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굳이 내색하려 한다거나 숨기려 하지 말라. 82년생 기회는 한층 뒤어있는 바이니 선택을 잘 해야 한다. 94년생 행운의 그림자가 비친다. 행운의 숫자 : 42, 74</p>
<p>41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이다. 53년생 제대로 인식해야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65년생 양자 사이에서 관련한 처지에 놓인다. 77년생 집착하다보면 지나치게 민감해질 수도 있으니 마음을 비우는 것도 권했다. 89년생 단순 비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01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 했던 깊은 뜻을 깨달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3, 26</p>	<p>35년생 알뜰하다면 생활의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47년생 단단히 마음먹고 있어야겠다. 59년생 누구든지 회자정리 하는 법이다. 71년생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니 아예 포기함이 낫겠다. 83년생 오래갈 인연이 아니니 마음을 비우고 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95년생 다른 결과가 도출 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5, 60</p>